

## /// 연구소 소식 ///

### 1. 「외래어 표기 용례집」(교과용 도서 수정용) 발간

1986년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를 수정하기 위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1987. 3. 30 발간했다.

이 책은 4×6 배판 300 면으로 컴퓨터 출력지를 마스터 인쇄한 것이다. 그 내용은 제 4차 교육 과정에 따른 현행 초·중·고등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외래어 중 인명과 지명을 뺀 9,870 항목에 대해 원어와 그에 대한 한글 표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. 띄어쓰기는 원어에 따랐으며 배열도 원어를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하였다.

한글 표기는 이미 쓰여 온 표기를 가능한 한 관용으로 인정하여 정했다. 다만,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은 점과 장모음의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은 점은 거의 예외 없이 표기법 규정을 지켰다.

### 2. 「漢字·外來語 使用實態調査」(1910~1970年代) 발간

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한자·외래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조사 자료집 2를 1987. 5. 30 발간했다. 1985년 발간한 「漢字·外來語 使用實態調査」(1980년대)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.

4×6 배판 1,123 면으로 된 이 책은 각 시대마다 가장 일반적인 신문·잡지 각 1종 한 달 치를 골라 신문은 5일 간격, 잡지는 5면 간격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.

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외래어는 알파벳순으로 하였다. 3,335개의 한자가 약 41,437개의 표제 어휘에서 사용되고, 외래어는 1,346 어휘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.

### 3.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안 확정

1985년부터 문교부의 위촉으로 진행하던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 작업이 1987. 4. 24 일차 마무리되었다. 그러나 일반의 여론을 구하고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 이 시안을 검토위원회의 심의에 붙였다. 그 결과 1987. 6. 30 최종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. (자세한 내용은 pp. 80~87 참조)